

“새봄, 좋은 기운 얻고 시작합니다”

2023 계묘년 탐라국입춘굿 4년만 대면행사로 진행 ‘새봄맞이 큰잔치’ 시민 발길에 제주목 관아 복적 안녕·건강 등 기원 소원지 주렁… 활기찬 새해 기대

코로나19를 지나 4년 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된 새봄맞이 큰잔치 ‘2023 계묘년 탐라국입춘굿’. 행사가 열린 관덕정과 제주목 관아에 모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복적이며 제주시 원도심이 들썩였다.

제주시 주최, 제주민예총 주관으로 지난 2일 거리굿으로 시작된 ‘2023 계묘년 탐라국입춘굿’이 입춘(立春)인 4일 입춘굿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관·민이 합동으로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치렀던 입춘굿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맥이 끊겼지만, 1999년 제주민예총이 전통문화축제로 복원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 해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곳이면서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제주 사람들의 신명나는 축제로 되살린 ‘탐라국입춘굿’은 올해 ‘성

안이 들썩, 관덕정 꽃마중’을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했다.

행사 둘째 날인 지난 3일엔 하늘에서 오곡씨를 가져 온 자정비에게 제주섬의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세경제를 시작으로 제주큰굿보존회 주관의 ‘낭체코사’와 오석훈 작가의 입춘회호 퍼포먼스, 그리고 향아리를 깨뜨려 모든 역운을 제주도 밖으로 내보내는 의식인 사리살성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한 관광객(서울 거주, 20대 대학생)은 “처음 제주에 와서 입춘굿 행사를 본다”며 “좋은 기운을 얻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소원지에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적어 걸었다.

한 70대 시민은 “세경제 보면서 제주가 발전하고 농사도 잘 되서



‘2023 계묘년 탐라국입춘굿’ 행사 둘째 날인 지난 3일 관덕정 마당에서 입춘회호 퍼포먼스 후 향아리를 깨뜨려 모든 역운을 제주도 밖으로 내보내는 의식인 사리살성이 진행됐다.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했다”며 “새해 사람들이 복적이니 좋다. 오늘 행사를 기점으로 원도심이 사 람들로 더 복적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인 4일 진행된 입춘굿에선 올해 호장으로 선정된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 “지겨운 코로나 역병과 온갖 잡귀잡신들도 썩 물러가게 하소서, 올해 검은 토끼해에는 탐라 선민들에게 칠성같이 영민하고 밝은 빛을 내려주게 하소서”라며 입춘덕담을 건넸다.

새해 안녕과 건강, 행복 등을 바라는 방문객들의 소원도 넘쳐났다. “우리 가족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년 만 더 살게 해주세요” “부자, 건강, 행복, 장수” “가까운 그대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올해는 몸도 마음도 내실 있게 튼튼하게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도와주세요” “행복한 일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등 제주목 관아엔 춘등과 함께 저마다의 소원이 빼곡히 적힌 소원지가 주렁주렁 내 걸렸다. 오은지기자 ejo@ihalla.com

제주의 과거, 현재의 이야기

제주문화원 향토사료 발간

제주문화원이 제주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다양한 읽을거리를 담은 2022년도 향토사료 6권을 발간했다.

먼저 ‘역주 탐라일기’는 1841년 이원조가 제주목사로 도입했을 때 동행한 친형 이원호가 쓴 기행일기이다. 19세기 중반 제주의 풍물과 습속 외에 백록담, 천제연, 마라



도, 용두(龍頭), 정방폭포, 성산, 우도, 김녕굴 등 자연경관까지 자세히 기술해 제주도사 연구에 중

요한 자료다.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문화’ 다섯 번째 이야기도 나왔다. 이번 5호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50대 이상의 제주사람들이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경험한 일상 생활에 얽힌 이야기를 직접 집필했다.

‘제주도금석문집5’는 지역 원로 향토사학자와 학계 사학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역사, 문화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선시대 묘비를 발굴, 조사해 엮은 책이다. 비문 해석뿐 아니라 비석 주인공과 관련

된 문헌사료·비문작성자·비문글씨를 손 이 등이 자세히 기록했다.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제주도 사람들의 일상 모습이 담긴 사진을 조사, 수집하고 이를 묶은 ‘사진자료집, 공감5080II’도 펴냈다.

이외에 제주문화원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 문화 관련 전문 강사와 애월리 마을주민들이 함께 마을의 역사, 생활유적 등을 조사해 만든 마을지 ‘함께 만드는 마을지 6 애월리’와 ‘제주문화28호’도 발간했다. 오은지기자

합창의 매력속으로

제주아트센터 이달 19일 해외합창단 초청 공연

세계 합창 경연대회에서 수상 경력 이 있는 수준 높은 해외 합창단들

이 제주 무대에 선다. 제주아트센터는 이달 19일 오후 5시 해외 합창단 초청 공연 ‘2023 리조이스 콰이어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무대에 오스트리아 스피탈 합창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리버사이드시티대학합창단(미국)’과 11

회 발리국제합창축제 종교음악부문 챔피언십 우승 ‘보이스 오브 발리 합창단(인도네시아)’, 그리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트로피 2회 수상 및 아베 베를 국제합창경연대회 대상을 3회 수상한 ‘산토토마스대학합창단(필리핀)’이 오른다.

더불어 제주에서 활동하는 여성 합창단 연합으로 구성된 ‘제주페스티벌여성합창단(지휘 김희철)’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며, 자유좌석제다. 관람을 희망하는 관객은 공연 당일 제주아트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오은지기자

새해 듣는 명작... ‘황제와 세헤라자데’

제주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함께

도립 제주교향악단이 새해 첫 공연을 통해 힘찬 기운을 전한다. 이달 16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도립제주교향악단의 163회 정기연주회가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의 협연과 김연아의 피겨 곡으로 유명한 러시아 작곡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가 연주된다. 공연의 문을 여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작품 73 ‘황제’는 베토벤이 악화된 난청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작곡했음에도 피아노 협주곡의 정점을 이루는 역작이다. 2부의 ‘세헤라자데 작품 35’는 천일야화로 불리는 중동 민화집 ‘아라비안 나이트’를 소재로 한 이국적인 교향시로 제주교향악단의 화려한 관현악 연주를 만끽할 수 있다.

관람 신청은 사전 온라인 예약(제주예술단 홈페이지)으로 가능하다. 관람료는 일반 5000원, 단체 4000원(10인 이상), 청소년 3000원이며,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증명서류 지참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축제처럼 즐기는 ‘아트페스타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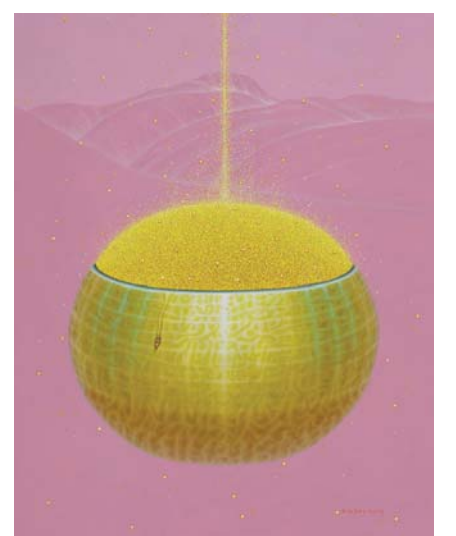
9-12일 제주컨벤션센터서 40여개국 2000작품 선봬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으로도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아트페스타’가 제주를 찾는다.

아트페스타 제주 조직위원회는 오는 9-12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아트페스타 제주 2023’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아트페스타 서울’에 이어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40여개 갤러리가 참가해 작품 2000여점을 선보인다. 21C 현대 초상 회화의 거장 알렉스 카츠의 작품을 비롯해 ‘천국에서의 휴가’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팽그리터 등의 작품까지 풍성하다. 여기에 국내 대표 스테디셀러 작가인 김석중, 강철기, 조국현 등 중견작가의 신작도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한국민화협회의 민화특별전도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제주작가들의 특별전도 열린다. 오름 위에 부는 바람을 통해 제주의 풍광과 정신을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해온 백광익의 작품과 유채꽃, 방짜유기 등을 소재로 제주 특유의 정서를 담은 김순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프랑스, 스위스, 중국 등 해외갤러리도 제주를 찾는다. 이번 제주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오는 6월 서울무역전시



김순겸 작 ‘기억 넘어 그리움-YOUCHAE FLOWER(한라산)’

장에서 열리는 ‘아트페스타 서울 2023’의 해외 참여 갤러리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모를 통해 선발한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50만원 특별부스전을 비롯해 아트테라피 부스,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번 제주 행사의 운영위원장을 맡은 제주국제예술센터 백광익 이사장은 “서울에 이어 제주를 찾은 아트페스타가 그 열기와 흥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전시를 준비했다”며 “아트페스타 제주가 제주의 소중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광익기자

2억원 기획보증보험 가입

떠나요! 마닐라닐라닐라! 직항전세기

양국정부인허가조건

제주 ↔ 필리핀/마닐라 3박4일

관광 125만원 (미취학아동: 85만) 골프 159만원 (54H/3조이상 단독) 항공권 69만원 (한정판매)

추가좌석 확보 마감임박!!

02. 25(토) ~ 02. 28(화) 출국 20:45-23:15 귀국 16:00-20:30

니하오여행사 064-722-6638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5성급호텔, 차량료, 한국어가이드, 식사, 입장료, 여행자보험, 그린피/54H, 캐디피&가트피 등 불포함사항: (관광)가이드&기사료, (골프)캐디팁(18홀/\$2), 매너팁, 개인비용 *전세기의 경우 양국(국토교통부)의 허가에 따라 기재된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